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출장명 : 대만의 쌀 관세화 과정과 TRQ 관리 방안 조사 출장

1. 출장 목적

- 현재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해외 쌀 산업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대만의 관세화 전환시 TE 계산 방법 및 이해관계국과의 협상 내역 파악
- 대만의 TRQ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2014년 우리나라 쌀 관세화 전환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3. 6. 25(화)~6. 27(목)(2박 3일)
- 출 장 자: 송주호 연구위원
- 방문지역: 대만 대북시

3. 일정표

일 시	이동 및 주요 일정	비고
6월25일(화)	○ 인천공항→대만 도착 ○ 대만 국립대(Shin-Hsun 박사)	- 출국
6월26일(수)	○ 농업위원회 방문(농량서, 국제처) ○ 쌀 수입 업체 방문 ○ 아태지역 FFTC(식량기술센터) 방문	- 관계관 면담 - 쌀 수입상 면담 - FFTC 소장면담
6월27일(목)	○ 수입쌀 유통실태 조사 ○ 대만→인천공항	- 귀국

4. 출장 결과

(1) 대만의 쌀 관세화 과정의 경험

-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기준년도(1990~1992) 소비량의 8%를 MMA로 허용
 - 2002년 내 관세화 전환 또는 관세화유예 연장을 결정하기로 합의
- 2002년 WTO 가입 당시 허용한 MMA와 관세화유예 연장시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수입량에 대한 부담으로 관세화로 전환

- 일본의 관세화 사례와 같이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
- 관세화유예 연장시 미국은 매년 2%씩 16%까지 TRQ 증량 요구

○ 대만이 2002년 9월 30일에 제출한 양허표 초안의 형식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양허표를 수정해 WTO사무국에 제출함으로서 대만의 공식적인 쌀 관세화 양허표 제출일은 2002년 10월 16일임.

○ WTO에 관세화 전환을 통고한 후 미국, 호주, 태국이 높은 관세상당치에 문제를 제기해 오랜 동안 양자협상을 거쳐 2007년 7월4일 WTO가 대만의 양허표를 최종 승인함.

○ 최종 승인까지 약 5년이 소용된 주요 쟁점은 대만의 높은 관세상당치 계산에 대하여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이 이의신청했기 때문이지만, 최종 양허표에 국별 쿼타를 추가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 대만은 합의과정동안 미국, 호주, 태국의 이의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으며, UR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계산했고, 관세상당치를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공식통계자료를 획득했는지는 반복적으로 설명했음.

- 미국, 호주, 태국은 대만이 사용한 자료를 여러 차례 검증하였으나, 어떤 문제나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음. 이 밖에도 일본의 쌀 관세율이 1000%를 넘는 현실에서 대만의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 관세상당치(TE)는 53NT\$/kg으로 종가세로 환산시 663% 수준

- 2003년 적용 관세는 기준 관세상당치에서 15%(최소감축률) 감축한 45NT\$/kg(종가세로 환산시 563%)
- 2003년 TRQ는 2002년과 같은 144,720톤(소비량의 8%)으로 이중 65%는 국영무역, 35%는 공매방식(민간무역)으로 수입

<대만의 관세상당치 계산>

(단위 : NT\$/kg)

구 분	국내가격(A)	수입가격(B)	A-B
1986	62	8	54
1987	62	8	54
1988	60	9	51
평 균	61	8	53

주: 국내가격 : 1999~2001년도 브랜드 소포장미 도매가격(월별 최고와 최저의 평균)을 도매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여 기준년도(1990~1992) 가격을 추정

국제가격 : 태국산 가공용 찹쌀 정미의 CIF 가격

- WTO 가입(2002년), 관세화 전환(2003년) 과정에서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국내 시장에 심각한 혼란 발생
 - 민간수입 물량(TRQ의 35%)이 시장에 유통되고 정부 수입물량이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
 - 대만정부는 쌀농가 현금구조 조치, 농회 등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 긴급여량 구매조치 등의 긴급조치를 발동
- 관세화로 전환 이후 고관세 장벽으로 쌀 수입물량이 TRQ 물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
 - 특수한 용도로 소량 수입(년간 500톤 내외)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

(2) 한국에 대한 조언

- 관세상당치 계산에 있어서 공식통계자료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함. 한국이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충분한 관련자료와 신문을 비롯한 공개된 자료를 준비해야 함. 대만은 신문을 비롯한 모든 공개 자료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가격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음. 결국 대만 식량청(Food Agency)의 출판물에서 국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발견할 수 있었고, 최저 수입가격은 관세청으로부터 가공용 찹쌀 수입가격을 찾을 수 있었음.
- 관세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함. 이에 관해서는 일본이 좋은 예임. 일본이 비밀리에 관세화 자료를 준비

했고, 일본이 관세화 전환을 WTO에 요청한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함. 미국은 각국 정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관세화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 미국이 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미국은 한국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봐야 함.

- 관세화 협상에 있어서 특별히 관세율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말을 아끼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함. 관세상당치에 사용된 자료와 계산이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해야 함. 관세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절대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되, 서로 자국의 농업을 위해 일한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함.

(3) 관세화 전환이후 TRQ 운용 결과

- 대만은 전체 쿼터의 65%를 국가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이 수입함.
 - 국가가 수입하는 쿼터중 일부는 정부가 일반구매를 하고, 일부는 SBS 방식으로 민간에게 쿼터를 배정하는데 그 비중은 정부 양곡창고의 재고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2년에는 국가 수입량중 40%가 SBS로 운용되었음.
- 대만의 TRQ는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세화 협상에서 결정되었음. 이는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음.